

면목2동 사랑의 손뜨개로 따뜻한 마음 나눠요~



면목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자)는 지난 12월 6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께 추운 겨울을 따

뜻하게 해줄 사랑의 목도리 300개를 전달하였다. 이 목도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장단, 새마을 문고 등 직능단체회원들과 주민 등 37명이 참여하여 손수 짠 목도리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목도 어깨도 아파 힘든 적도 있었지만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더 봉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면목3·8동 다문화가정 『보람이의 첫 돌잔치』

면목3·8동 적십자봉사단(단장 임경숙)은 지난 12월 7일 면목3·8동 주민센터에서 다



문화가정의 자녀 진보람의 첫 돌잔치를 열어주었다. 보람이 엄마 La Theory씨는 캄보디아에서 낯선 한국으로 시집왔지만 이웃들과 적십자봉사단의 특별한 관심속에서 보람이를 낳았고, 마치 친정어머니와 같은 가족애를 느끼며 보람이가 건강하게 자라 첫돌을 맞게 되었다. 보람이 엄마에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을 것이다.

면목7동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전달



면목7동 주민센터는 지난 12월 5일 동 주민 김형태 씨로부터 백미 20kg 108포를 기증받아 관내 저소

득 가구 및 틈새계층 108세대에 전달하였다. 매년 저소득 가정에 쌀을 기탁하고 있는 김형태 씨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더불어 사는 훈훈한 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기부의 뜻을 전하였다.

상봉2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품 전달

상봉2동 소재 단체와 기관들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후원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였다.



지난 12월 8일에는 상봉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석진)에서 20포(20kg), 문화체육추진위원회에서 57포(20kg), 대진인쇄사에서 12포(20kg) 등 총 89포를 후원해 주었으며, 12월 12일에는 GS건설(대표 허명수)에서 200포(10kg)를 기탁하였다. 특히 GS 건설은 2009년부터 3년째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고 있다.

중화1동 「수지사랑 수지침봉사단」의 어르신 손마사지 봉사

「수지사랑 수지침봉사단」(단장 안승재, 강동구 천호동)은 지난 12월 9일 중화1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저소득 어르신 15분을 모시고 건강레크레이션, 손마사지 봉사와 함께 내의와 양말을 전달하였다. 2000년 7월 창단하여 꾸준히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는 「수지사랑 수지침봉사단」은 수지침·손마사지 봉사, 노인정 순회 봉사 등을 통해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중화2동 「중화2동 통장협의회」의 희망 장학금 전달

중화2동 통장협의회(회장 변석구)는 지난 11월 29일 상반기 60만원에 이어 이번에도 통장회원들이 모은 100만원을 「중화2동 꿈나무장학회」에 전달하였다.

꿈나무장학사업은 2010년부터 중화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인수)가 펼치고 있는 사업으로 뜻있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장학금을 기탁 받아 관내 어려운 청소년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 현재 4,400여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까지 총 20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묵2동 어린이 한자, 어렵지 않아요!

묵2동 주민센터에서는 매주 화, 목요일 1시간씩 어린이 한자급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2월부터는 기초반을 따로 구성하여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상작용을 통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한자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자급수교실 강사인 박공남 선생님은 "한자를 배우면 우리 국어도 정확히 배울 수 있고 집중력



과 창의력이 향상되고 아이들의 생각이 깊어진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과 쉽고 재미있는 한자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망우본동 「극락사」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송년

극락사(망우본동, 주지 석철우)에서는 지난 12월 4일 저소득 어르신 100여 분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대접하였다. 또한 지난 12월 5일에는 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 배추 500포기를 전달하는 등 매년 어려운 이웃 돕기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석철우 주지 스님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공양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극락사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망우3동 추운 겨울 따뜻함을 전하는 망우3동

연말을 맞아 망우3동 곳곳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자치회관 손뜨개 교실(강사 남명수)에서는 추운 겨울 가족이 없어 더 외로운 저소득 홀몸 어르신 50여 분께 6개월 이상 정성껏 만든 따뜻한 목도리를 선물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에는 허용욱(前 용마장학회 이사장)



씨가 백미 100포(250만원 상당)를 홀몸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관내 어려운 이웃 100세대에 전달하였다.

신내1동 「신내1동 통장협의회」의 김장김치 나눔

신내1동 통장협의회(회장 박경선)는 지난 11월 24일, 25일 이틀간 동주민센터 앞 마당에서 사랑의 김장 450포기를 담아 관내 19개 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하였다.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행사에는 자매결연지인 괴산군 소수면에서 배추 450포기를 지원하였고, 신내동 새마을금고, 동진전설(주), 신내SK주유소 등에서도 후원해 주었으며, 신내1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 직능단체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하였다.